

서호인의 '소설처럼'



사이다는 없다 -서미에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

속이 답답할 때, 냉장에서 막 꺼낸 사이다를 마시면 이를 데 없이 시원하다. 시원하긴 하지만 자주 마시면 그게 몸이 좋을 리 만무하다. 그래서 운동선수나 식이요법 중인 사람은 탄산음료를 멀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날이면 얼음 잔에 담긴 사이다 한 잔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이다 캔을 막 찢을 때 나는 소리, 그걸 컵에 따를 때 나는 탄산 터지는 소리가 들어도 마음속까지 청량해지는 것이 분명하다. 역시 속이 답답할 때는 사이다다. 설명이 없어도 물어 조금 안 좋더라도.

'사이다 서사'라는 말이 있다. 답답한 구석 없이 시원하게 즐거리가 진행되고 사건이 해결되는 이야기를 뜻할 것이다. 눈엣가시 같은 악역이 있을 때, 공분을 사는 악당이 활개 칠 때, 사이다 서사는 빛을 받는다.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에 따른 정벌은 사이다는커녕 미명만 생수쯤 될 것이다. 그마저 목을 축이면 다행이다. 현실에서 악행은 드라마보다 광범위하고 교묘하다. 현실에서 복수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언제나 한 발 늦는 듯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적 복수를 꿈꾼다. 많은 이야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판타지를 해소하는 데 적격적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폭력은 폭력으로 맞선다. 그래야 사이다를 마신 듯 감탄사를 뱉으며 시원해 한다.

최근에는 특히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룰 때 사이다 서사가 효과적인 듯하다. 올해 상반기 인기작인 '경이로운 소문'에서 초반 악역은 같은 학교 학생들을 괴롭히

는 소위 '일진'들이었다. 드라마에서 학교의 시스템과 어른의 간섭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수가 다수를 향해 행하던 무소불위의 폭력은 주인공이 그들보다 더 큰 힘을 획득해 그들을 때려눕힐 때까지 계속된다.

카메라는 때리는 주인공과 맞는 악역의 액션을 집요하고 실감 나게 보여 주었다. 교복을 입은 악역들은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맞는다. 현재 방영 중인 '모범택시'는 대놓고 '사적 복수 대행'을 표방한다. 첫 번째 복수는 역시 학교 폭력이었다. 복수는 합정과 계락을 통해 협박으로 완성된다. 지상파급에 가해자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빠진 사이다'라는 평도 있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추리소설 작가 서미에의 신작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에도 누군가는 위와 비슷한 평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사이다를 위해서는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 사건에 휘말린 인물의 심리, 사건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풍경은 되도록 납작해질 테지만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는 도리어 이런 것들에 충실하다. 시작은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이다. 따돌림과 폭행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급기야 죽음에 이르고 만다. 가해자 무리는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를 은폐한다. 피해자는 실종이 아닌 가출로 처리되고,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해 사실은 없던 일이 되려 한다. 주인공 하영이 동굴에서 죽은 학생의 가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앞서 말했듯이 이 소설은 학교 폭력에 관한 소재로, 흔히 기대하는 사이다 서사와는 거리가 멀다. '하영 연대기' 3부작의 2부인 만문 전작 '잘 자요 엄마'에 이어 심리적 갈등과 서스펜스를 극대화시키는 전통적 추리소설 혹은 범죄소설에 가깝다 할 것이다. 소설에서 가해자들은 하영에 의해 처단되지만, 악행에 걸맞은 폭행을 가하는 사적 복수의 형태는 아니다. 소설은 처음부터 복수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듯,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가해자와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하영의 마음에 집중한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스스로 사이다 서사가 될 수 없다. 탄산음료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씹사름한 허브티에 가까울 것이다.

사람들이 사이다 서사를 원하는 이유는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 폭력이 최근 서사물에서 자주 다루지는 이유는 현실에서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현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기에 사적 복수가 시원한 사이다로 변모한 것이다. 하지만 다시 현실에서 사이다는 그저 음모수일 뿐 어떤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한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의 결과만 낳을 뿐이다.

'모든 비밀에는 이름이 있다'에서 하영은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니지만, 결정적 순간까지 그걸 꺼내어 쓰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사이다는 되지 않았으나, 성장소설이자 추리소설의 미덕을 갖게 되었다.

의료칼럼



김호군 전남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비만은 질병이다

비만은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고혈압, 2형 당뇨병, 수면무호흡증, 관절 질환, 비알콜성 지방간, 위식도 역류, 고지혈증, 심근병증, 관상동맥 질환 등 많은 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만 자체가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질병은 조절하거나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런 잘못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몸의 세팅을 바꿔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 비만 수술이다. 게다가 이 수술법은 2형 당뇨병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어 이미 당뇨병 진료 지침에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분류하고 비만과 당뇨 치료를 위한 수술 효과가 인정되어 2년 전부터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비만 수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비만 수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중에는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운동으로 살을 빼야지 수술로 살을 빼려 한다'는 비난과 만류로 수술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당뇨 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의 의사까지도 수술을 말렸다고 하니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느리고 힘든 지를 실감하게 된다. 더불어 전신마취나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은 비만 수술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수년 전 유명 가수가 비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경험한 우리에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많이 시행되는 비만 수술은 '위소매술'과 '위우회술'이다. 과거에 많이 유행했던 위밴드술은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3% 정도만 시행되고 있다. 위소매술은 위 용적을 줄이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위우회술은 위 용적을 줄이고 호르몬도 변화시키며 소장에서의 흡수까지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위우회술은 수술 후 체중 감소는 더 많지만 합병증률이 조금 더 높고 위암의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한 신중한 수술 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수술의 합병증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며, 후시 생기더라도 경험 있는 의료진과 충분한 장비가 갖춰진 병원이라면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니 막연히 비만 수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며, 하나의 질병이다. 질병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비만 환자도 비만 수술을 통해 건강한 상태의 몸을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다. 비만은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며,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

기고

'촛불'을 꺼트리는 민주당, 그것을 지켜보는 고통



박영수 전 광주시의원

술하게 들으며, 그로 인해 때로는 극우들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오래도록 견디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진 저울바람을 뚫고 광주와 광화문을 오르내리며 촛불을 들었던 호남인들은 민주당을 향해 '촛불을 꺼 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180석 여의도를 가득 채운 초선들을 '촛돌이'로 비하하는 말들도 심심찮게 거리에 나도는 중이다.

재보선 패배 후 민주당의 분란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에 빗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친문을 탓하는 이들은 진영 논리를 펴고 있는 강성 당원들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고, 당의 주류인 친문들은 '머리가 깨져도 우리의 길을 간다'는 원리주의자의 고집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정권은 넘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해가며 강성 주장을 펴던 일부 친노 인사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민주당을 아끼는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양측 다 '뺨맞'이다. 조국이 문제이고, 추미애가 문제이고, 당헌 개정이 문제였다면 그때 왜 침묵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촛불을 들었었는데,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원칙까지 뒤엎으며 재보선에 당이 후보를 낸다 할 때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솔직히 친문이 문제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바람에 흔들리고 비겁했다는

자기 고백을 먼저 내놓아야 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에서 촛불 정권 사수의 깃발을 들었던 광주와 국회의원 여덟 명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시간이다. 이들은 당이 갈지자 결음을 걸을 때도 침묵했었고, 지금도 이들의 목소리는 성찰의 대열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일종의 회색 정치다. '촛돌이'라는 비아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대목이다.

진영 논리에 함몰된 친문 강성 당원들에게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서울과 부산을 뺀다고 뒤엎은 그날 밤 개표 지도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그 빨간색 안에는 수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가 있고, 수많은 민주당 단체장들이 동지를 틀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참패했다. 결국 이번 재보선은 박영선과 김영춘을 심판한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선거임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기는 유체이탈은 상식 밖의 일이다.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옳은 방향을 가려고 노심조사 중인데 야당과 언론의 농간에 휩쓸린 우매한 국민들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고민하며 소주잔을 나누고 있을지 모른다. 이들에게 충고를 하자면 거듭 실패하고 거듭 일어난 김대중과 노무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다. 두 정치 지도자가 겪었던 모진 시련과 아픔을 되새겨 보라는 주문이다.

社說

'고교학점제' 혼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교육부가 발표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유엔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내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4년 뒤엔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하는 데 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선 고교는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 때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대입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 논·서술형 시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미래형 대입 제도 논의에 착수했다. 고교학점제는 자기 주도 학습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여러 가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별·학교별 양극화 심화다. 과목 개설은 학교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도시와 농어촌 간은 물론 사립과 공립 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교원 수급 역시 선결돼야 할 과제다. 교원 개개인이 맡아야 할 과목이 늘어나는 만큼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심하게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광주 도심 도로 공사 꼭 한꺼번에 해야 하나

최근 광주 시내 주요 도로에서 온갖 공사가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심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공사는 우선 지하철 2호선(순환선) 1단계 공사다. 여기에 하수관거, 시설물 보수, 도시가스 배관, 포트를 메우기 등 다양한 도로 공사가 맞물리고 있다. 게다가 공사는 평일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지기도 한다.

광주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7일에 광주 시내 16곳에서 그리고 다음날인 18일에는 13곳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평일인 20일에도 하루 동안 지하철 2호선 공사 3곳 등 모두 17곳에서 공사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차를 가지고 나온 시민들은 수시로 바뀌는 차선과 교통체증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도로 공사 현장은 대부분 1-2개 차선을 막고 진행되는데 문제는 차선 변경 등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전방 차선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와 다투는 경우도 비밀비재하다. 게다가 좁아진 차선에 불법 주차차 차량이 한 개 차선을 막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지기도 한다. 시민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도로 공사가 아무리 불가피하다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사 구간 전방에 도로 안내 및 차선 변경이나 차선 축소에 대한 편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이다. 아울러 공사를 진행하는 시간대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출퇴근 시간을 피해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실시하고 각종 도로 공사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그러라 그레'. 올해 노래 인생 51주년을 맞은 양희은이 펠런 에세이 제목. 짧지만 인상적이다. MBC라디오 '여성시대'를 22년간 진행해 온 그가 '월간 여성시대'에 실었던 글 등을 모아 출간한 이 책 제목에는 "그 입장에 처해 보면 나라고 예외일 수 있겠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에필로그에 "인생이 내게 베푰 모든 실패와 어려움, 내가 한 실수와 결례, 철없었던 시행착오도 다 고맙습니다. 그 덕에 마음자리가 조금 넓어졌으니 까요"라고 적었다. 인생의 풍파를 헤쳐 온 어른의 지혜가 담긴 말인 듯하다.

그가 노래한 세월이 50년이니, 누구나 그의 노래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터. 나는 고교 시절, 흥사단에서 활동했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금관의 예수'(김민기 곡으로 양희은은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라는 제목으로 녹음했다)와 대학 입학 전 통기타를 배우겠다며 똥방거렸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우선 기억에 남는다. 타이프가 늘어지게 들었던 '양희은 1991' 수록곡들도 좋은 추억이다. 오로지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연주와 양희은의 목소리만으로 구성된 앨범 중 특히 좋아했던 '가을아침'은 아이유가 리메이크해 사랑을 받기도 했다. 또 다른 수록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나 뮤직비디오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엄마가 딸에게'(2015)도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양희은과 땀 수 없게 노래는 '아침이슬'이 아닐까. 시대가 만들어 낸 히트곡 '아침이슬'이 올해로 발표된 지 50년이 됐다. 김민기 작사·작곡의 아침

이슬은 작곡가나 가수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많은 역사의 현장에서 불러며 '시대의 노래'가 됐다.

'아침이슬' 50년

아침이슬이 가장 극적으로 불린 때는 2016년 촛불 집회 현장이었다. 양희은 스스로도 가장 의미 있는 무대로 짚은 그 현장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태평'을 하며 하나가 되었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은 지금 봐도 장관이다. 영상을 되돌려보면, 현장에서 아침이슬을 불렀던 사람들, 모두 함께 공감했던 그 우리들을 떠올리며 '촛불'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 보는 요즘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실	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FAX 222-0195	(FAX 222-0195)
전남본부 220-064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